

3-16-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잠언 8:22-36

말씀제목: 잠언에 나타나신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잠 8:22)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도 증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요 1:1-2)

잠언 기자는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드러)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은 곳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범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잠 8:23-31)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요 1:3-5)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째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골 1:13-17)

선지자 이사야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실 분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사 9:6-7)

사도 요한은 마침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8-
9)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은 믿음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고전 15:2-5)

그리스도 예수께서 벨레만도 못한 나같은
비참한 죄인을 위하여 태초에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악한
세상에 나타나셔서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한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행 8:37)

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말했는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기도하셨는지 또한 심각하게 깨달아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요
17:2-8)

아멘! 할렐루야!